

# 이동국 '승선'...박주영 '탈락'



〈이동국〉

## 내달 네덜란드전 베어백호 확정

부상으로 2006 독일 월드컵 참가마저 포기했던 '라이언킹'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약 15개월 만에 다시 축구대표팀에 발탁됐다. 골키퍼 이은재(수원)도 8개월 여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달 2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네덜란드와 친선 경기에 출전할 국가대표팀 최종명단 22명을 확정, 28일 오후 발표했다.

22일 32명의 예비 명단을 발표했던 김 베어백 감독은 지난 주 프로축구 컵대회와 K-리그를 통해 선수들의 몸 상태를 점검한 뒤 최종명단을 확정했다.

태극전사들은 오는 31일 낮 12시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 소집, 이날 오후와 6월1일 오후 두 차례 훈련을 하고 네덜란드와 맞붙는다.

마르코 판 바스텐 감독이 이끄는 '오렌지군단' 네덜란드는 30일 오후 1시 입국할 예정이다. 최종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이동국의 재발탁이다. 골키퍼 이은재도 지난해 9월 대만과 아시안컵 예선 이후 8개월 여 만에 다시 베어백호에 이름을 올렸다.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 중에서 박주영, 정조국(이상 서울), 백지훈(수원), 김영광, 오장은(울산) 등은 제외됐다.

지난 3월 우루과이와 평가전 예비명단에 포함됐다 최종 엔트리에서 빠졌던 박주영은 또 다시 베어백호 승선 기회를 놓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주영〉

## 프로축구 사실상 전반기 마감

# 골잡이 '용병 천하'

프로축구 정규리그가 거의 반환점을 돌고 A매치 주간 휴식기를 맞아 숨을 고르고 있다. 전기 마지막 라운드인 13화전이 6월16일과 17일에 남아있지만 2주 뒤라 사실상 지난 주말 라운드까지 전반기를 마감했다고 볼 수 있다. 올해는 통합 라운드라 전·후기 구분의 큰 의미는 없다.

득점순위 10위내 무려 8명 1~5위 휩쓸어

토종은 이근호(6위)·이천수(8위) 2명 뿐

반쯤 끝난 리그는 무패 선두 성남의 득점을 2~4위 수원, 경남, 울산이 힘겹게 쫓는 양상이다. 초반 가파른 상승세를 탔던 FC서울은 부상 악몽에 사로잡혀 8위로 떨어져 주춤했다. 광주상무는 정규리그에서 첫 승 신고도 못하고 최하위인 14위를 기록중이다.

득점 레이스를 들여다보면 최근 5년 새 '용병의 득세'가 가장 강한 해로 기록될 만하다. 용병이 없는 광주상무로선 슬픈 얘기다.

정규리그 득점 순위 10위 안에 토종 골잡이로는 6위 이근호(대구·6골)와 8위 이천수(울산·5골)만 이름을 올리고 있다.

1~5위는 까보레(경남·9골), 모따(성

남·7골), 스테보(전북·7골), 뽀뽀(경남·7골), 데안(인천·7골)으로 '용병 천하'다.

특히 신임용 까보레, 스테보, 데안의 기세가 무섭다. 브라질(까보레, 모따, 뽀뽀)과 동유럽(스테보, 데안) 출신이 득점 레이스를 양분했다.

지난 시즌엔 우성용(울산)이 성남 유니폼을 입고 16골로 득점왕에 올랐고 10위 안에도 김은중(서울), 고기구(포항), 이동국까지 토종 4명이 포함됐다. 2005년엔 박주영(서울)이 2위를 하면서 김도훈(성남 코치), 이천수가 톱 10에 진입했고 2004년에는 우성용, 김은중이 4, 5위를 지켰다.

2003년과 2002년에도 각각 3, 4명이 10

위 내 골잡이에 들어 체면치레를 했다. 올 시즌엔 특히 정통 토종 골잡이들이 '실종' 상태다.

이근호와 이천수는 둘 다 윙 포워드로 문전에서 전문적으로 골 사냥을 하는 포지션은 아니다. 이천수는 가끔 새드 스트라이커 역할도 하지만 코너킥, 프리킥 전담 키키도 맡고 있어 득점 레이스에만 전념할 수 없다.

컵 대회를 포함한 전체 득점 순위 10위 안에도 국내 선수는 이근호와 이천수 뿐이다. 전체 득점 1위는 20경기에 12골을 몰아넣은 대구의 새 용병 투이치루.

K-리그의 토종 정통 골잡이로는 박주영, 정조국, 김은중(이상 서울), 안정환(수원), 김동현(성남), 우성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서울의 세 골잡이는 부상으로 들락날락했고, 안정환은 적응이 덜 돼 엔트리에서 자주 빠졌다. 김동현, 우성용도 쉽지 않았다.

여기다 재정 능력이 약한 팀들은 중앙 포워드를 쳐다 용병으로 채웠다. 당장 성적 올리기 위해선 삼바 골잡이들의 화려함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올 시즌 절반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국산 골잡이'들의 골 세리머니가 점점 드물어질 것 같은 분위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베이징올림픽 야구드림팀 예비후보 55명 발표

### 한기주 등 KIA 선수 7명 포함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에 나갈 야구 국가대표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8일 오후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기술위원회(위원장 윤동균)를 갖고 프로 50명과 아마 5명 등 1차 예비 엔트리 55명을 발표했다.

1차 엔트리는 포지션별로 투수 24명과 포수 5명, 내야수 15명, 외야수 11명이다.

해외파로는 일본의 이슴업(요미우리)과 이병규(주니치), 미국의 서재용, 류제국(이상 펠라베이 데블러스), 김병현(플로리다 말린스)과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박찬호(뉴욕 메츠), 주신수(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등이 모두 포함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내 선수로는 지난 해 투·타 트리플 크라운에 빛나는 이대호(롯데)와 류현진(한화)이 이름을 올렸고 미국 생활을 접고 국내로 복귀한 봉준근(LG)도 투수에 포함됐다.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1루수 부문 후보에는 이슴업과 이대호, 김태균(한화), 이승용(현대)이 명단에 있었지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경력의 최희섭(KIA)은 제외됐다.

또 '전국구 에이스' 손민한(롯데)을 비롯해 문동환, 구대성(이상 한화), 오승환(삼성), 한기주(KIA), 장원삼(현대), 정대현(SK)도 투수 후보 24명에 들었다.

KIA에서는 투수에 한기주를 비롯해 윤석민, 신용운이 포함됐고, 내야수에선 이현근과 김중국이, 외야수에선 이종범과 장성호가 발탁됐다.

## 해발 2,500m 이상에선 축구국제대회 할수없다

### FIFA 선수보호 규정 마련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 안전을 위해 국제경기 개최에 고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FIFA는 28일(이하 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FIFA 집행위원회에서 앞으로 선수 보호를 위해 해발 2천 500m(약 8천200피트) 이상의 경기장에서는 국제경기를 치르지 못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볼리비아는 월드컵 지역 예선 홈 경기를 해발 3천600m(약 1만1천810피트)의 수도 라파스에서 치러 상대로부터 불공평하다는 비난과 함께 선수 안전에도 위험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볼리비아는 2005년 10월 열린 2006 독일 월드컵 남미 지역예선에서도 세계 최강 브라질을 불러들여 1-1로 비겼을 정도다.



## 본즈 746호

### 개인 최다홈런 -10

미국프로야구의 흥린 신화를 만들고 있는 슬러거 배리 본즈(43·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19일만에 아치를 그리며 오랜 홈런 기록을 끝냈다.

본즈는 28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

경기에서 1-4로 뒤진 6회말 1사 1루 볼가운트 2-1에서 상대 선발 테일러 벅츠를 상대로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날렸다.〈사진〉 본즈는 올 시즌 12호이자 개인통산 746호를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최다홈런 기록 보유자인 헨크 아론(755홈런)에 9개 차이로 따라붙었다.

본즈는 9일 뉴욕 메츠전에서 톰 글래빈을 상대로 홈런을 뽑은 뒤 침묵했던 부진을 씻고 신기록 달성 초입기에 들어갔다.



29일(화)

▲메이저리그<클리블랜드-보스턴>(07:55·Xports)

▲NBA 서부컨퍼런스 결승 4차전<샌안토니오-유타>(10:00·MBC ESPN)

▲리틀야구 극동지역 아시아예선 Day-3(13:00·MBC ESPN)

▲프로야구(LG-삼성)(17:40·KBSN Sports), <롯데-한화>(18:20·SBS스포츠), <KIA-현대>(18:30·MBC ESPN)

30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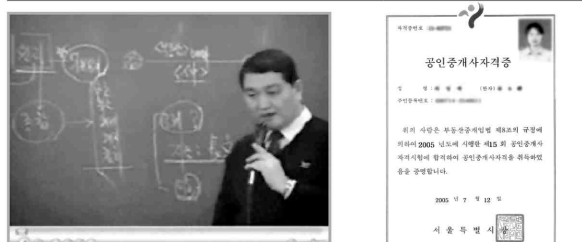
▲NBA 플레이오프 2007 동부컨퍼런스 결승 4차전<클리블랜드-디트로이트>(09:00·SBS스포츠)

▲메이저리그(디트로이트-탬파베이)(08:00·Xports), <시애틀-LA에인절스>(10:55·Xports)

2007년 10월 28일 시험 확정!!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격 가능

# 신바람 공인중개사CD 공인중개사 18회 시험 합격 해법!

합격을 책임질 명강의, 명강사!



유명 강사진의 현강진 달리는 강의로 마리에 벅속 들어옵니다. 올해는 꼭 자격증을 취득하십시오.

## 해법1 족집게 강의만이 속성 합격의 지름길!

제 14회 공인중개사 수석 합격 및 노량진 학원가의 명성 그대로 전국최대 합격생을 배출한 최광익이 합격의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해마다 바뀌는 출제경향을 꼭꼭 잡아내는 족집게 강사들의 명강의만 있었습니디.

## 해법2 핵심내용의 반복만이 초심자 합격의 지름길!

40점 과락없이 60점 이상이면 합격! 핵심내용만을 계속 반복하면 수석은 아니더라도 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핵심내용의 반복! CD동영상 강의는 언제라도 이해가 될때까지 반복학습 가능합니다.

## 해법3 초심자 눈높이 강의만이 교과완정정복의 지름길!

강의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초심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작해서, 눈높이에 맞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강의 실력이 벅속 올라가면서, 지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 중고 CD 보낼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4동 807-5 가인빌딩 103호 (주)나래디앤피 TEL : 021392-0972

시간절약, 금전절약의 황금찬스  
족집게강의 동영상CD 풀세트 39장



385,000원

126,000원

특별사은품  
기출문제(12~16회) CD 증정

- 민법 및 민사특별법 CD 7장
- 부동산학 개론 CD 6장
- 부동산 공법 CD 10장
- 2개월 분의 학원강의 수록
- 1개월이던 완전 마스터 가능
- 부동산 공시법 CD 5장
- 중개법령 및 실무 CD 6장
- 부동산 세법 CD 5장
- CD 1장짜 40분 강의
- ※ 교재 필요시 별도 구매 가능

# 글로벌시대 요즘 뜨고 있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는 필수!!

중국어+일본어+영어=125,000원 => 99,000원 (교재는 별도)

완전 100% 학원강의식 동영상 강의 신바람 업그레이드 강좌 영어회화



38,000원 \*교재는 별도

잘 통하는 영어 4가지 비법

- 비법1 : 내가 필요한 영어부터 습득하라!
- 비법2 : 영어리 영어 (Cluster English)로 익혀라!
- 비법3 : 영어리 (발음, 강세, 억양) 과 동시에 익혀라!
- 비법4 :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할 것

잘 통하는 영어 5단계 프로그램

- 1단계 : Listening CD강의 내용을 면밀히 듣는다.(5회)
- 2단계 : Repeating 영어의 발음을 듣고 따라한다.(10회)
- 3단계 : Simultaneous Language Learning 원리의 녹음과 동시에 말한다.(10회)
- 4단계 : Role Playing 상대방과 역할이 가며 말한다.(2회)
- 5단계 : Conversing 외국인 또는 친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화한다.(2회)

중국어를 잘하는 방법!! 요즘 중국어가 뜨고 있죠?



48,000원 \*교재는 별도

우선 중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발음과 성조입니다.

성조를 잘하는 방법!!

- \* 음운으로 공부하세요.
- \* 성조를 음운으로 표현하면서 크게 말하십시오.
- \* 병음과 성조는 충분히 익히십시오.
- \* 가능한 성조배열에는 1:1로 동영상강의로 개인수업 받으십시오.
- \* 성조를 정확하게 체크가 가능해야 합니다.
- \* 성조를 배울때는 동영상 강의를 100% 활용하십시오.
- \* 아침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성조를 읽으면서 녹음하고 동영상강의 선생님 강의로 교정받으세요.

일본어를 배우려면 9가지의 벽을 넘으면 일본어 끝!



39,000원 \*교재는 별도

첫째, 히라가나라는 일본문자이며 둘째, 암기할 단어 셋째,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 넷째, 조사와 부사 등의 문법적 요소 다섯째, 1945년이나 되는 상용한자 여섯째, 일본식 관용표현 일곱째, 존경어 여덟째, 1945년이나 되는 상용한자를 펜으로 직접 쓰기 아홉째, 작문

인터넷 쇼핑몰 www.itscom.co.kr NAVER 통합검색 이츠컴 검색

●공금원 : (주)나래디앤피 ●국민은행 / 예금주 : 스미일 / 계좌번호 : 417201-01-145079

24시간 무료상담전화 : 080-466-3030 (일요일, 공휴일 상담가능)

●소자본 개업 가능 ●조기 명예퇴직 · 전직대비 ●여성의 경제적 독립기회 ●고소득 자유 직업

●국민은행 / 예금주 : 스미일 / 계좌번호 : 417201-01-145079 ●각종 카드 결제 가능

연중 무료상담전화 : 080-466-3030